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인프라 '순항'

시, 배터리 시험동 운영 시작...인증서비스 개시 국내 유일 전기차 안전기준 전체 항목 검증 가능 첨단장비 181종·자율주행 실증장비 26종 구축

국토교통부와 광주시가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의 인프라가 착착 구축돼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순항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품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이 지난 17일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2월부터 인증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는 급증하는 친환경 자동차 인증수요와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인증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친환경차 부품인증 국가기관이다.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구축에 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와 함께 부품개발-인증-완성차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구축이 현실화돼 광주가 친환경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인증센터의 인증·평가 장비는 친환경차 배터리 평가장비 6종, 충돌안전성 평가장비 7종, 충격안전성 평가장비 10종, 화재재현장비 및 법적 부대장비 3종 등 26종이고 총사업비는 390억 원으로 이중 국토교통부가 195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이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배터리 시험동은 국내에서 배터리 안전성 평가항목 12개 전체를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8개 시험실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개가 배터리 화재 폭발에 대비한 방폭구조를 갖췄다.

최대 2톤 규모의 전기버스 배터리 시험

이 가능한 진동시험기 및 충격시험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침수시 안전성을 평가하는 침수·압착 시험기도 설치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역시 자동차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유연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부품인증센터 인접 부지에 구축 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

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 고도화, 기업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3,030억 원을 투입해 구축 중이며 지난해 12월에는 기반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됐다.

특히 선도기술지원센터에는 친환경차 부품개발을 위한 첨단장비 181종과 함께 자율주행 실증장비 26종이 구축돼 있어, 지역 부품기업의 친환경·스마트 부품 개발과 구축장비를 활용한 친환경차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부품인증센터의 배터리 시험동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에 한해 배터리 시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식은 부품인증센터에 운영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이 비용의

50%를 감면하고 감면된 비용은 시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터리 화재재현장비 및 법적부대장비, 주행로 300m를 가진 충돌 시험동과 충격 시험동은 올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GGM 공장 준공 및 캐스퍼 양산, 3,030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기반 시설 준공에 이어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친환경 선도도시 광주시대를 여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내 친환경 미래차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시 방역조치 특별점검 회의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특별점검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유관기관·기업 수출 확대 지원 힘쓴다

온라인 설명회서 15개 기관에 200개 사업 설명

전남도는 20일 수출기업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 금융 등을 촘촘히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을 통해 생중계 했다.

설명회에는 전남도 국제협력관, 수산유

통기공과, 농업기술원 등 수출지원 관련 3개 부서를 비롯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우정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 전남FTA활용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이 참

여했다. 전남도는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아마존 입점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과 함께 소량 수출 국제특송비 및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등 47개 사업을 안내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바우처 사업을, 광주본부세관은 FTA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기업화물서비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는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동향 등을

안내하는 등 총 200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전남도는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에 위해 행사 종료 후 '으뜸전남'에 설명회 영상과 함께 사업 설명 자료를 올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물류와 무역금융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이 많다"며 "이번 설명회가 전남 수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쌀 적정가격으로 구매해야"

쌀 시장격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수준의 구매가격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위해 "적정가격"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대선후보, 당대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선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장 쌀 농가의 절박함 속에서 결정된 시장격리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쌀 가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선제적인 시장격리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결정이 늦어진 탓에 안정적인 쌀 가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양곡관리법에 자동시장격리제가 신설될 때만 해도 불안정적 가격 유지와 생산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시장격리 결정을 지체한 것도 모자라 다시금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250만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재, 일자리창출 공헌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율)이 20일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영혁신 및 일자리창출공헌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영혁신 및 일자리창출 공헌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수-남해해저터널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화 사업 추진', '석유화학단지기 위치 한 여수와 남해안남중권의 기후위기대응 선도지역 전환 추진'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호남권 SOC 개발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여수-남해해저터널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는 모두 시민들께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덕분"이라며 "이번 수상은 저와 함께 여주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주시민들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김덕수 전 총리비서관, 나주시장 출마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이 나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덕수 전 비서관은 20일 나주빛가람동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나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비서관은 "나주는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나, 이대로 머무르느냐'는 중차대한 분수령에 도달해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나주의 미래 세대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김부겸 국무총리실 등 정부 핵심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앞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나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과 도약의 토대를 쌓기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1조 원 기업 10개 육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교육기관 유치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산강변 국민체육시설·관광지원화 ▲살기 좋은 도시 나주를 위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등 8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

보광종합건설(주)